

음료시장에도 건강 소비트렌드가 대세

카자흐스탄사무소

건강음료와 비알콜음료에 대한 관심 증가

- 최근 카자흐스탄 음료시장의 화두는 건강이다.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건강열풍이 카자흐스탄 소비자 사이에서도 확산되어가는 중이며 이런 현상은 음료시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.
-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알콜음료를 찾는 소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면서, 비알콜음료 시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0%대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기능성음료 대신 과일주스와 차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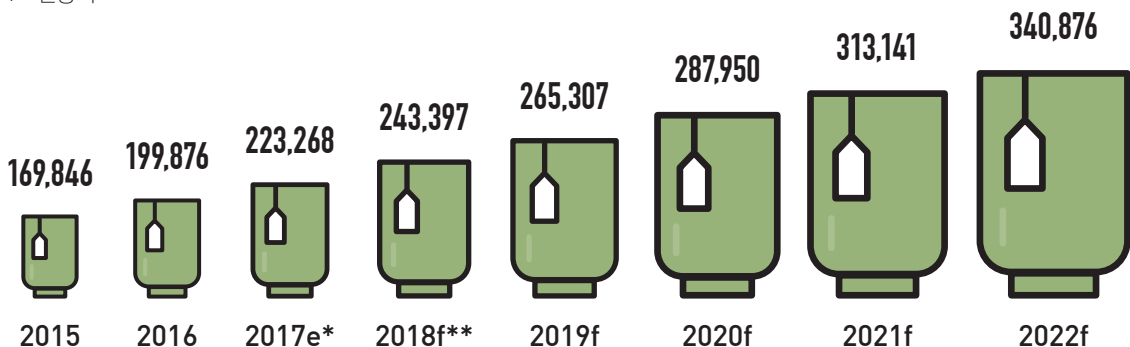
- 알콜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알콜도수가 낮은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, 비알콜음료 시장에서는 기능성음료보다 과일주스나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. 한때 기능성음료의 인기가 높았지만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 수요가 감소하는 중이다.
-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차문화가 일상화된 국가다. 비알콜음료 시장 총매출 가운데 57.4%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의 식문화에서 차는 중요한 식품이다. 특히 다양한 차 종류 중에서 ready-to-drink tea(이미 차를 우려낸 음료) 제품시장이 크게 성장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.

비알콜 음료 시장 전망

(단위 : KZTmn)

* e : 추정치

** f : 전망치



카자흐스탄 주요 ready- to-drink 제품현황



Fuse-tea(500ml)
업체명 : Coca-cola KZ
가격(Galmart*) : 170 KZ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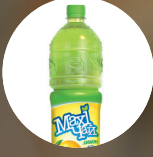
Lipton(500ml)
업체명 : Unilever
가격(Galmart*) : 170 KZT



Rix-Tea(500ml)
업체명 : ДальПродукт
가격(Galmart*) : 155 KZT



Turan(500ml)
업체명 : Кокшетауминвод
가격(Galmart*) : 145 KZT



Maxi чай(475ml)
업체명 : Galanz bottlers
가격(Galmart*) : 150 KZT



PIALA(500ml)
업체명 : RG Brands
가격(Galmart*) : 170 KZT



한국전통차로 건강음료 시장에 도전을

- 카자흐스탄 음료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최근 성장하고 있는 ready-to-drink tea 제품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- 현재까지 주로 유통되고 있는 유자차나 생강차는 액상형태라 카자흐스탄 소비자에게는 생소한 면이 있다. ready-to-drink tea 형태의 유자차와 생강차를 개발해 선보인다면 현지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ready-to-drink 인삼차도 하나의 브랜드만 진출해 있는 상태라, 더 많은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어 볼 만하다. 단맛을 좋아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꿀인삼차나 꿀홍삼차와 같은 신제품들이 가세해 한국 인삼차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.